

People

one sip of

Lazy Vision



아지트를 등에 업은 삼총사는 힘이 세다. 고달픈 하루를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안정감과, 이곳에서는 내가 나일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방패가 되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우정과 꿈을 무기로 두 번째 집을 만들어 버린 동네 친구 세 명이 이곳에 있다. “해볼까? 하자!” 기세로 시작한 내추럴 와인바 ‘레이지비전’은 첫돌을 넘기고 어엿한 동네 사랑방이 되었다. 이들은 오늘도 이곳에서 인생을 더 재밌게 사는 법을 고민한다. 그들의 속도로, 삼총사는 멈추는 법이 없다.

one sip of lazy vision



비와 미드볼



즐거움 파스타



서약 세비체

- 요즘 가장 재미있는 거요? 강성웅 교수님의 불교 유튜브랑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테이지 파이터’!
- 식물 기르기, 여전히 술 마시기와 대화하기.
- 요가 그리고 인도 전통 의학 책 〈아유르베다〉.

아유르… 베다? 3인 3색 관심사에 무방비로 웃음이 터졌다. “저희 셋이 너무 달라서 깜짝 놀라실걸요.” Y가 지나가듯 한 말이 그제야 머릿속을 스쳤다.

대화가 오가는 곳은 방배동 조용한 골목의 레이저비전(이하 레비). 동네 친구 J, Y, Q가 운영하는 작은 내추럴 와인바다. 내추럴 와인이란 오직 포도와 포도 껍질의 자연 효모로만 만드는 와인을 말한다. 이곳에서는 내추럴 와인과 더불어 레비의 시그니처 메뉴 3가지를 포함한 간단한 요리도 맛볼 수 있다.

대학에서 시작된 J, Y, Q의 인연은 3년 전 Y가 두 사람의 동네로 이사 오며 더 깊어졌다. 모든 것의 발단은 J가 폭 빠진 한 카페. 토요일 아침마다 두 친구를 불러 커피를 즐기던 것이 점점 술을 곁들인 진득한 시간으로 이어졌다. 그러니 카페에서 5분 거리인 Y의 자취방이 첫 번째 아지트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카페 옆 세탁소 자리가 비워졌고, 세 친구는 그 자리에 와인바를 열겠다는 원대한 꿈에 뜻을 모았다. 늘 공간 운영을 꿈꿔온 Y가 전반적인 브랜딩과 총괄을 도맡았다. 각자 본업이 끝나면 두 번째 일터로 출근하는 식. 매주 회의를 거듭해 서로가 상상하는 레비의 모습을 맞춰 나갔고, 마침내 세 친구의 두 번째 보금자리가 탄생했다.

People

“처음에는 체력이 안 받쳐줘서 더 싸웠던 것 같아요. Y한테 가게에 누울 수 있는 의자를 사달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가는 J는 생일 파티에 스무 명이 넘는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일명 ‘J 유니버스’의 주인공이다. Y의 말을 빌리자면 대학 시절 호피 무늬처럼 튀는 옷을 자주 입었는데, 이제는 호피 대신 Y의 큼지막한 옷을 빼앗아 입는다. J는 늘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을 꿈꿔왔다. 그녀는 대학 내내 자기 이야기보다 옆에 앉은 두 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을 더 반짝거렸다.



Q는 J가 미대 입시 학원 강사일 때 그 학원의 수강생이었다. 끝까지 학원에 남아 그림을 그리던 Q의 성실함은 지금도 여전하다. Q는 두 친구가 입을 모아 “가장 한결같다”고 말하는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한데, 그런 그녀에게 레비는 일상의 통풍구이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갈증 해소의 공간이다. 셋의 관계는 Q가 좋아하는 드라마 〈프렌즈〉속 여섯 친구의 우정을 떠올리게 한다.

“평소처럼 Y의 집에 모여 있는데 마치 ‘모니카’의 집에서 수다를 떠는 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Y에 대한 Q의 첫인상은 독특하다. 하필 ‘하와이안’이 드레스 코드였던 J의 생일 파티에서 Y를 처음 보게 된 거다. 사실 Y는 하와이안 셔츠의 이미지와는 상반된 섬세함과 감수성을 가졌다. 촬영 날 선물 받은 꽃을 일일이 정돈해 화병에 꽂는 일도 그의 담당이었을 정도다. 대학교 때는 항상 늘어져 있는 듯한 모습 때문에 별명이 ‘베짱이’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주위의 속도에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은 거침없이 한다. 레비는 말하자면 베짱이의 꿈이 실현된 곳. 이곳의 정체성은 Y로부터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one sip of lazy vision



People



레비가 자리한 곳은 변화가보다 초등학교와 더 가까운 주택가 골목. 그래서인지 다양한 형태와 연령대의 손님들이 문을 두드린다. 혼자 살면서 한잔하러 오는 커리어우먼 단골 손님이 있는가 하면, 손을 꼭 잡고 산책하다 들르는 중년의 부부 손님도 있다.(종종 옆 테이블까지 함께 계산해 주시기도 한다!) 서로 다 마시지 말라는 귀여운 핀잔을 주고받으며 와인 한 병을 나눠 마시던 또 다른 부부 손님의 모습도 이들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이끌리듯 들어왔다는 할머니 한 분도 특별한 손님 중 하나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 아니냐며 어색해하던 할머니는 다음 방문에서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고 가셨다. 할머니가 몇 번이고 강조한 조언은 “꼭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

“이상하게 레비에 오면 손님들이 속에 있던 고민을 털어놔요.”

와인을 곁들인 대화는 대부분 느릿하고 몽근하다. 소주는 한입에 털어 마시고 다음 ‘짬’을 해야 하지만, 와인은 천천히 음미할수록 그 진가를 알게 된다. 입안을 휘감은 달콤쌉쌀한 맛이 종적을 감출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설부른 말은 삼켜지고 속마음이 고개를 내민다. 세 친구가 맥주도 칵테일도 아닌 내추럴 와인을 고른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것이다.



레비는 이 삼총사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 놓고 건네주는 곳이다. ‘우리는 친구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마시는 내추럴 와인을 좋아하는데, 넌 어때?’ 곳곳에 스며 있는 다정한 물음에 마음이 동한다.

이곳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이들의 취향이 담긴 오브제와 그릇도 솜인숍(shop in shop) 형태로 판매한다. 자꾸 보게 되는 작은 고양이 오브제나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면 내어주는 아담한 그릇 같은 것들도 레비에 축적된 서사의 일종이다. 한 겹씩 떼어먹는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취향이 쌓인 곳은 맛이 지루하지 않다. Y는 이곳을 설명할 때 ‘서사의 축적’이라는 표현을 쓴다.

“무언가를 규정하기보다 레비에 오는 손님들을 통해 서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축적되었으면 좋겠어요.”

People



규정되지 않은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공간은 주인을 닮는다고, 레비와 세 친구의 공통점은 변화와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당연하겠지만 레비에 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양송이버섯 다 떨어졌어, 토마토소스가 없어...”

토마토소스 이야기와 인생 고민이 동시에 오가는 이들의 관계는 이제 친구이자 동업자다. 하지만 세 친구는 합의된 규칙 안에 서로를 가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자의 목표와 다짐이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걸 택했다. 억지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다툼을 통해 이해하는 것. 다른 채로 두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가 있다.

처음과 비교해 많은 게 달라진 이들에게 여전히 건 무엇인지 묻자 ‘믿음’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망가진 모습의 마지노선조차도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종류의 믿음이라고. 가면을 벗은 맨얼굴을 아는 사이여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셋의 뒷모습을 보며 우정도 서사처럼 축적되는 게 아닐까 싶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삶 속에서 우리는 망가지기도 회복하기도 하지만, 서로를 지켜보며 차곡차곡 쌓인 것들이 관계를 유지하니까 말이다.



레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채로 사는 거라는 J의 말처럼 정답은 없는 것 같다. 예나 지금이나 세 친구의 술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화 주제는 '인생을 어떻게 더 즐겁게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는 이들에게 레비가 즐거움으로 남아 있다면, 분명 어떤 형태로든 셋의 'lazy'한 'vision'은 이어질 것이다.

세 친구는 지극히 다르지만 비슷한 구석이 있다. 기쁨과 슬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모습을 전부 나누는 사이 장난스러운 얼굴까지 닮아버린 이들. 그 공통분모를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와인 한 모금을 넘기다, 나도 어느새 그 얼굴이 되고 말았다.



INFO

Instagram @lazyvision.seoul

Address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9길 42-7 1층

